

3-4세 일반아동의 종결어미 발달¹

김순란* · 김정미**

(*신화 말·언어치료실,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김순란·김정미. 3-4세 일반아동의 종결어미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4, 제9권, 제3호, 22-35.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들의 발화에 나타나는 종결어미를 통해 문장종결법과 청자대우법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3세와 4세의 정상 아동 32명을 대상으로 아동-성인-아동이 짝을 이루는 놀이상황에서 자발화를 수집하여 각 문장종결법의 빈도, 문장종결형의 수, 각 청자대우법의 빈도 및 범주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장종결법의 산출빈도에서 3세와 4세 아동 모두 설명법, 의문법, 약속법, 명령법, 감탄법, 경계법, 공동법, 허락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장종결형의 유형수를 살펴본 결과, 설명법, 명령법, 의문법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자대우법의 산출빈도 분석 결과 두 연령 집단 모두 ‘해체’, ‘해요체’,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4세 아동은 3세 아동에 비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산출빈도를 비교한 결과, 비격식체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격식체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아동들의 종결어미의 발달적 특징과 임상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핵심어: 종결어미, 문장종결법, 문장종결형, 청자대우법

I. 서 론

우리말은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보면 뿌리에 명확한 문법적 관념을 가진 문법형태소를 덧붙여 서 문법기능을 나타내는 교착어(혹은 첨가어)이다. 즉, 우리말은 어간에 덧붙는 어미와 조사가 풍부하고 이들은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어미와 조사 중에서도 조사보다는 어미에 더 큰 비중이 있다(한 길, 2004). 따라서 언어발달 시 어미의 습득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최은희, 2000).

어미는 단어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뉜다.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며 시제, 상, 서법, 대우법 등을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어말어미는 단어의 맨 끝에 오는 어미로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나뉜다. 종결어미는 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내는 어미로 의미에 따라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기원형, 의문형, 감탄형, 응낙형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비종

¹ 본 논문은 나사렛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논문으로 나사렛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결어미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지 않은 어말어미로 기능에 따라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뉜다.

우리말에서 종결어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문법적인 요소에 비해 큰 편이다. 또한 종결어미는 발화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한 길, 1991). 종결어미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문장종결법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문장종결법이란 대화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 맺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문장종결법은 문장종결법의 종류 또한 학자에 따라 4가지부터 10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남기심·고영근, 1985; 윤석민, 1996; 한 길, 2004). 윤석민(1996)은 담화 상황 안에서의 문장종결법을 여덟 가지, 즉, 설명법, 감탄법, 의문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명령법 및 공동법으로 나누고 이분법적인 분류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문장종결법(1)은 명제 내용이 상태정보에 관련된 문장에 선택할 수 있는 문장종결법으로 여기에는 설명형, 감탄형, 의문형 등이 포함되며 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적다. 문장종결법(2)는 명제 내용이 행동정보에 관련된 문장에 선택할 수 있는 문장종결법으로서 명제 내용과 관련된 행동이 수반될 것을 기대하는 종결형이다. 여기에는 명령형, 공동형, 약속형, 허락형, 경계형 등이 포함되며 대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어의 문말에서 실현되는 문장종결법은 그 실현형이 매우 다양하며, 문장 안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이 아니라 문장을 넘어서 담화 상황 안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종결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형태적 특징과 함께 화용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문장종결형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문장종결법이 화용적 상황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윤석민, 1996).

* 이것을 책상 위에 놓아라(명령법).

* 아이고, 배고파라(감탄법).

종결어미는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 외에 상대 높임의 범주를 표시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서상규·한영근, 1998). 즉 종결어미는 발화를 종결하는 동시에 화자의 대우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우법이란 어떤 대상을 언어로써 높이거나 낮추어 대접하는 법이다. 김기태(1997)는 화자가 청자, 주체, 객체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골라 쓰는 말씨라고 정의하였다. 대우법은 외국어에서는 흔하지 않은 한국어의 특이한 어법으로 어떤 대상을 대우하느냐에 따라 주체대우법, 청자대우법, 객체대우법 등으로 나뉜다(이주행, 2000). 청자대우법은 화자가 청자에 의해 알맞은 말씨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어머니 조사에 의해 구분됨으로 문장종결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서정수(1984)는 청자대우법을 이원적 체계, 즉, 격식체(formal style)와 비격식체(informal style)로 설명하고 있다. 격식체에는 ‘합쇼체(아주높임)’, ‘하오체(예사높임)’, ‘하계체(예사낮춤)’, ‘해라체(아주 낮춤)’가 있으며 비격식체에는 ‘해요체(두루높임)’, ‘해체(두루낮춤)’가 있다.

두 낱말을 결합하여 의미관계를 표현하기 시작하던 영아가 두 낱말의 조합시기가 지나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이들은 단순히 낱말을 조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어형소와 기능어들을 사용하게 된다. 배소영(1995)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경우 두 돌을 지나면서 문법형태소의 탐색의 시작을 알리는 특징을 보이며, 3세로 가면 몇 가지 다양한 종결어미의 사용을 보인다. 또한 4세 정도가 되면 모국어에 필요한 대부분의 구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2세 경에 아동은 조사와 어미의 습득이 활발해지면서 이때부터 대우법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 인섭(1986)에 의하면 대우법의 발달은 사회성의 발달에 정비례 하는 것으로서 아동은 인간관계를 의식하면서부터 '요'에 의한 청자대우법을, '-시'에 의한 주체 대우법을 2세 즈음부터 습득하기 시작하여 3 - 4세 경이면 대우법을 잘 구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미습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3세 아동과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종결어미를 통해 문장종결법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자대우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의 문법형태소 발달에 따른 언어발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평가 및 치료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어미의 문장종결법의 발달양상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결어미의 문장종결법의 산출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각 문장종결법에 따른 문장종결 유형수 산출빈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연령에 따라 종결어미의 청자대우법의 산출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연령에 따라 종결어미의 청자대우법 종류에 따른 산출빈도에 차이가 있는가와 연령에 따라 종결어미의 청자대우법 범주별 산출빈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3세와 4세 아동 32명으로 각 연령당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남녀 비율은 1:1로 하였다. 3세 집단아동들의 평균 생활연령은 3세 9개월이었으며 4세 집단의 평균생활연령은 4세 5개월이었다. 대상아동들은 모두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정상언어'를 말하고 있다고 보고한 아동들이었으며, 그림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1995)를 실시하여 정상 범위에 있는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2. 연구절차

가.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런 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발화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꿉놀이, 자동차놀이, 찰흙놀이를 선정하여 놀이를 구성하였으며 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부록 - 3> 참조). 발화수집의 장소는 어린이집 두 곳과 미술학원 한 곳에서 수집하거나 또는 언어치료실 한 곳에 아동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종결어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친한 같은 연령대의 아동 두 명 또는 본 연구자가 함께 놀이에 참여하였으며, 발화유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팀 놀이 이후 연구자와 일대일로 놀이를 하였다. 연구자가 아동의 모든 발화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시간은 40분 -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나. 자료전사

자료의 전사는 발화수집 후 일주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발화자료는 상호작용 시 도입부분의 어색한 부분을 제외하고 100 발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전사 시 발화 구분 원칙, 낱말 구분 원칙 및 형태소 구분 원칙은 김영태(2002)의 발화분석 기준을 따랐다.

다. 자료분석

아동의 전체 발화자료 중 비종결어미를 사용한 발화를 제외하고 종결어미를 사용한 발화를 토대로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설명법, 감탄법, 의문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명령법, 공동법 등 8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산출빈도를 살펴보았으며(<부록 - 1> 참조), 문장종결법의 각 유형 중 설명법, 의문법, 약속법, 명령법을 사용한 발화를 중심으로 각 문장종결형의 유형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종결어미를 사용한 발화를 토대로 청자대우법의 종류별 빈도수와 범주별 빈도수를 산출하였다(<부록 - 2> 참조).

라.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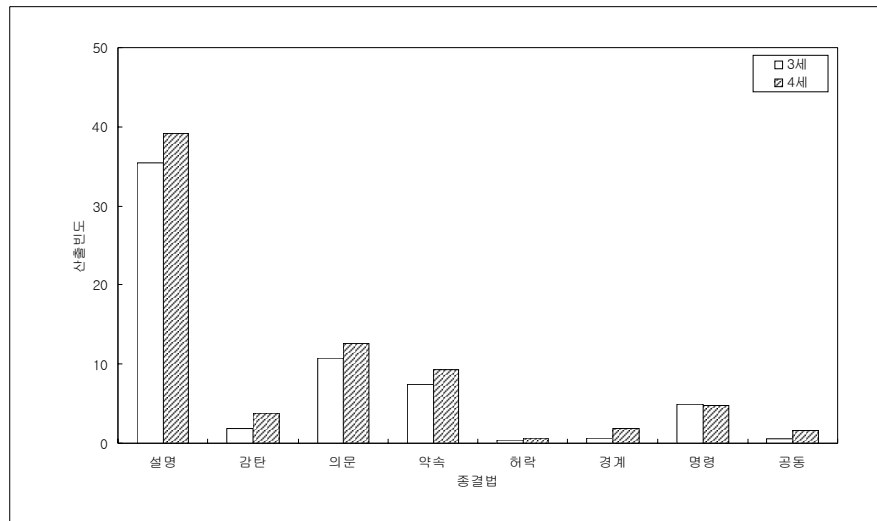
전체 자료 중 연령별로 각각 2명씩 총 4명의 자료를 선정하여 언어치료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명에게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게 하였다. 각 문장종결법에서의 산출빈도, 문장종결 유형 및 청자대우법의 산출빈도를 산출하여 각 조건에 따른 평가자 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문장종결법의 일치도는 98 %, 문장종결형의 일치도는 86 %, 청자대우법의 일치도는 96 %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문장종결법

가. 문장종결법의 산출빈도

문장종결법의 분석결과, 3세와 4세 아동 집단 모두 각각 35.36회와 39.12회로 설명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허락법은 각각 .43회와 .75회로 3세와 4세 아동집단 모두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빈도가 높은 순부터 정리한 결과 3세와 4세 아동 모두, 설명법, 의문법, 약속법, 명령법, 감탄법, 경계법, 공동법, 허락법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 1> 참조).



<그림 - 1> 문장종결법의 산출빈도

나. 문장종결법의 문장종결형 유형수

종결어미 중 산출빈도가 높은 설명법, 의문법, 약속법 및 명령법 네 가지를 선정하여 각 문장종결법에서의 문장종결유형수에서의 연령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 검증 결과, 설명법, 명령법, 의문법의 문장종결유형수에서 모두 4세 아동이 3세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즉 설명법($t = -3.12, p < .05$), 명령법($t = -2.39, p < .05$), 의문법($t = -3.04, p < .05$)에서 두 연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속법에서는 두 연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문장종결형의 유형수에 있어서의 연령 간 t 검증 결과는 <표 - 1>

에 제시하였다. 설명법, 명령법, 의문법 등의 문장종결법에 따른 문장종결형의 산출의 예는 <표 - 2>와 같다.

<표 - 1> 문장종결형 유형수에 있어서 연령 간 t - 검증 결과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설명법	3세	4.75	1.57	-3.12*
	4세	6.81	2.13	
명령법	3세	1.76	0.83	-2.39*
	4세	2.81	1.37	
의문법	3세	2.81	0.98	-3.04*
	4세	4.00	1.12	
약속법	3세	0.92	0.72	-0.68
	4세	1.01	1.37	

* $p < .05$

<표 - 2> 문장종결법에 따른 문장종결형 산출의 예

	3세 아동	4세 아동
설명법	-어/아, -대, -래, -르걸	-어/아, ㅂ니다, -덴다, -대, -래, ㄴ걸, -르걸, -답니다
감탄법	-구나, -어/아	-구나, -어/아, -어/아라
의문법	-냐, -나, -어/아	-냐, -나, -어/아, -르까
약속법	-어/아	-어/아
허락법	-어/아	-어/아, -려무나
경계법	-어/아	-어/아, -르라
명령법	-어/아	-어/아, -도록, -엇/앗
공동법	-자, -어/아	-자, -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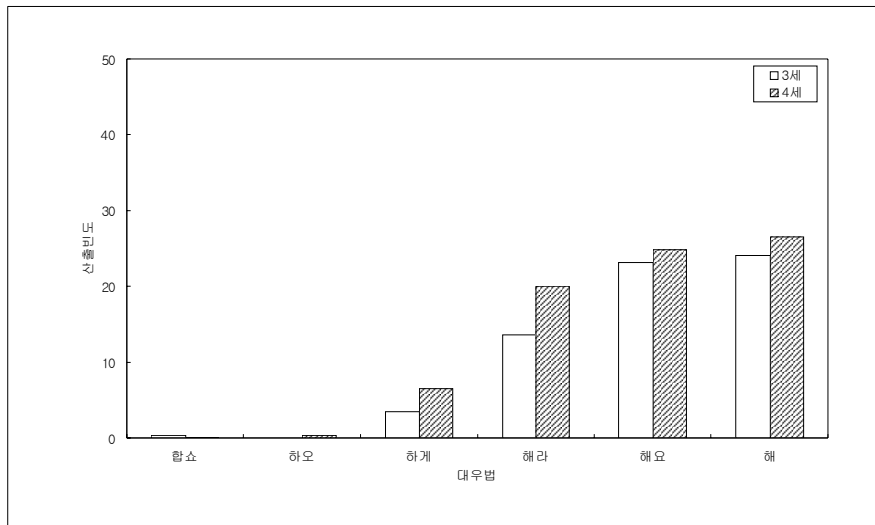
2. 청자대우법

가. 청자대우법의 산출빈도

두 연령 집단에서 전체 청자대우법의 산출빈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 2>와 같았다. 3세와 4세 아동 모두 청자대우법 중에서 '해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해요체', '해라체', '하계체', '합쇼체', '하오체' 순으로 나타났다. 3세 아동집단은 '하오체'가 산출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합쇼체'와 '하오체'의 산출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해요체'에서는 3세 23.18회, 4세 아동은 24.75회로 나

타났으며, ‘해체’에서는 3세 아동이 24.06회, 4세 아동은 26.50회로 두 연령 집단 모두 많이 산출되었다.

청자대우법의 각 종류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하오체’($t=2.07, p<.05$), ‘하계체’($t=2.21, p<.05$), ‘해라체’($t=2.29, p<.05$)에서 두 연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 3> 참조).



<그림 - 2> 연령별 청자대우법의 산출빈도

<표 - 3> 청자대우법과 연령간의 t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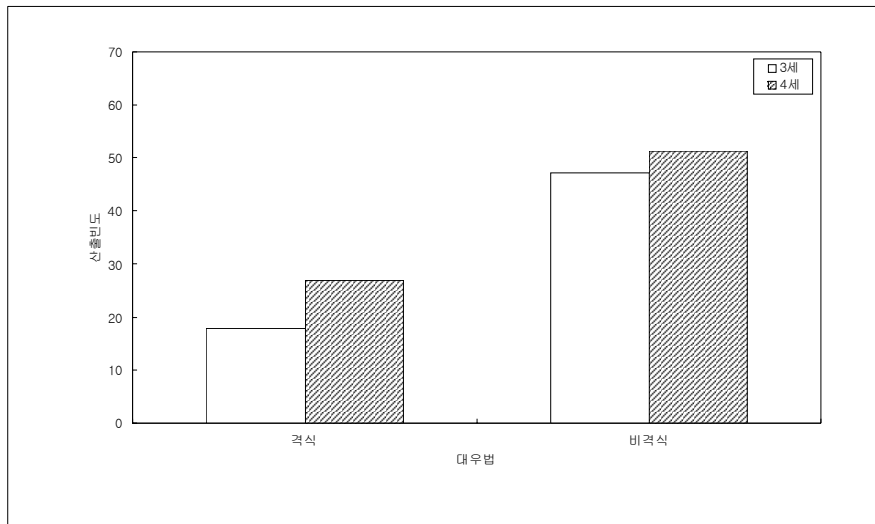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합쇼체	3세	0.37	1.25	0.73
	4세	0.12	0.50	
하오체	3세	0.00	0.00	-2.07*
	4세	0.31	0.60	
하계체	3세	3.43	2.18	-2.21*
	4세	6.56	5.18	
해라체	3세	13.56	7.33	-2.29*
	4세	20.00	8.46	
해요체	3세	23.18	18.11	-0.24
	4세	24.75	17.87	
해체	3세	24.06	13.24	-0.57
	4세	26.50	10.70	

* $p<.05$

나. 청자대우법 범주별 빈도

청자대우법 내의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산출빈도를 분석한 결과, 3세의 경우 격식체가 17.83회, 비격식체는 47.25회로 나타났다. 4세의 경우에는 격식체가 27.00회, 비격식체는 51.25회로 격식체의 사용에서는 4세가 3세에 비하여 많이 산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3세와 4세 아동 모두는 격식체보다는 비격식체의 청자대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3>은 청자대우법의 범주별 산출빈도로서 두 연령이 모두 비격식체 산출이 많았다. 특히, 4세 아동은 3세 아동에 비해 많은 수의 격식체를 사용하였다.

청자대우법의 각 범주별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 4>와 같다. 각 범주 중 격식체에서 4세 집단이 3세 집단에 비하여 높은 평균율을 보이고, 두 연령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t = -2.69, p < .05$).



<그림 - 3> 청자대우법의 범주별 산출빈도

<표 - 4> 각 범주와 연령간의 t -검증 결과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격식체	3세	17.37	8.93	-2.69*
	4세	27.00	11.17	
비격식체	3세	47.25	17.67	-0.69
	4세	51.25	14.61	

* $p < .05$

I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3세와 4세 아동의 종결어미 사용에 따른 문장종결법과 청자대우법의 산출에 대한 발달 양상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연령에 따른 문장종결법의 산출 빈도를 분석한 결과, 두 연령 집단에서 모두 설명법, 의문법, 약속법, 명령법, 감탄법, 경계법, 공동법, 허락법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Greenfield & Smith(1978)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같이 유아 자신이 현재 상태에 대한 기술이 선행하고 그 후에 타인의 행동 상태의 표현으로 이행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인섭(1986)은 3세 아동은 존재하지 않거나 상상적인 사건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이 시기의 아동의 발화는 거의 대부분 ‘여기-현재’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설명법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기-현재’의 사건 상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다른 문장종결법에 비하여 산출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연령에 따른 문장종결형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명법, 의문법, 약속법, 명령법을 선정하여 그들의 문장종결형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에서 4세 아동이 3세 아동보다 더 다양한 문장종결형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enyuk(1964)이 2세 10개월부터 7세 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는 연구결과에서 이 시기의 아동은 문법의 용례가 점점 복잡해져서 여러 구조 유형의 사용이 빈도와 함께 증가한다고 하였다.

각 문장종결법 별로 산출된 문장종결형의 유형을 살펴보면, 설명법에서 3세 아동의 경우, ‘-어/아, -대, -래, -르걸’ 등이 나타났으며, 4세 아동은 이에 더하여 ‘-습니다, -텐다, -르걸, -답니다’ 등이 산출되었다. 의문법에서는 3세에서는 ‘-냐, -나, -어/아’ 등의 유형은 활발하게 나타났으나, ‘-르까’ 등의 종결유형은 4세에서만 나타났다. 명령법에서 3세 아동의 경우 ‘-어/아’만 나타났으나, 4세에서는 ‘-도록, -엇/앗’이 추가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약속법의 문장종결형은 두 집단 모두에서 ‘-어/아’의 문장종결형의 형태가 나타났다.

구어체에서는 화자의 말을 종결어미로 끝맺지 않고도 발화를 끝맺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전영진(2002)은 중단에 의한 생략문의 종결형태는 대개 8가지로서 명사(구), 부사(구), 연결어미, 감탄사, 문미어, 선어말어미, 어간, 지시어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특히 문장이 종결어미로 끝맺지 않고 연결어미로 끝맺는 것을 연결어미의 종결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발화에서 정상적으로 문장종결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종결하지 않는 비종결 형태의 발화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3세 아동의 비종결 유형은 상대방의 질문에 “사과” 또는 “콜라, 김치” 등 하나의 명사나 두 가지의 명사를 나란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4세 아동의 발화에서는 “이거 차 같으니까”와 같은 형태의 연결어미의 상태로 종결을 시키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비종결의 형태였다. 그러나 감탄사나 지시어 형태의 비종결 형태의 문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아동의 연령에 따른 청자대우법의 산출빈도 분석결과 두 연령이 모두 ‘해체’의 산출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해요체’, ‘해라체’, ‘하계체’, ‘합쇼체’, ‘하오체’의 순이었다. 청자대우법의 각 종류와 연령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는 연령간 발달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세가 되면 아동들은 대화 시 청자에 따라 자신의 말을 바꿀 수 있는 사회언어적 기술이 발달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현진·박영신·김혜리, 2001).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들의 자발화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청자대우법 산출이 증가함이 나타났다는 이인섭(198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청자대우법을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 범주별 산출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3세와 4세 모두 격식체보다 비격식체의 청자대우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에 들어서 종래의 상·하 신분적 관계가 완화됨으로 인해 격식을 갖추어 상대를 대우하기 보다는 간소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한길, 2002)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세 아동은 3세 아동에 비하여 격식을 갖춘 청자대우법을 다소 많이 사용하였다. 배소영(1995)은 4세 아동의 경우에는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상대 높임의 의도로 높임이 문장형태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인지적 측면에서 탈자기중심화의 한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동의 청자대우법의 한 방법으로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것은 보조사 ‘요’의 사용이다. 본 연구에서도 보조사 ‘요’의 사용이 3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이인섭(1986)은 경어법의 발달 중 ‘요’에 의한 청자대우법이 가장 먼저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반말을 기본으로 하는 유아가 구조의 변경 없이 동사 말미에 보조사 ‘요’만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문중에 ‘요’를 첨가하게 되면 부차적으로 ‘요’가 가진 휴지의 자질로 인해 긴 발화의 중간 중간에 휴지를 둘 수 있게 되므로 적당하게 문장이 끊어지는 효과도 얻게 된다(김혜숙, 1986). 따라서 아직 의사소통 기능이 숙달되지 않은 3세 아동이 다음 발화를 하기 위한 준비로 ‘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자대우법은 상호작용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아동의 종결어미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하기 위하여 놀이상황에서 아동-아동-성인 형태를 구성하였으나 발화자료 분석에서 각 아동의 대화상대자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자대우법과 관련한 연구결과의 해석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미의 사용이 활발해지는 3 - 4세 일반아동들의 자발화를 토대로 종결어미의 산출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종결어미 산출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뿐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언어발달장애아동의 중재 시 종결어미에 대한 발달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태(1997). 국어 청자대우법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 · 장혜성 · 임선숙 · 백현정(1995).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혜숙(1986). 현대 국어의 대우법 체계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심 · 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배소영(1995). 우리나라 아동의 언어발달: 언어발달 진단의 일차적 자료. 『언어치료 전문요원교육』. 한국언어병리학회.
- 서상규 · 한영균(1998). 『국어 정보학 입문』. 서울: 태학사.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윤석민(1996). 현대 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섭(1986). 한국아동의 언어발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행(2000). 『한국어 문법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이현진 · 박영신 · 김혜리(역)(2001). 『언어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전영진(2002). 국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2000). 한국 아동의 어휘발달 연구: 13개월에서 3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 길(1991). 『국어종결어미연구』. 춘천: 강원대 출판부.
- 한 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 한 길(2004). 『현대 우리말의 마침씨끝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 Greenfield, P. M. & Smith, J. H.(1978).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New York, NK: Academic Press.
- Menyuk, P.(1964). Syntactic rules used by children from preschool through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35, 533-546.

<부록 - 1> 문장종결법 및 문장종결형

문장종결법	종결형	유 형	
		단일형	합성형
설명법: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은 알고 있지만 청자는 전혀 모르거나 완전하게 모르는 문장에 담긴 상태 정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문장종결법	-다, -라, -네, -이, -르세, -테, -오, -소 -비니다/습니다, -어/아, -ㅁ	-단다, -댄다, -란다, -다네, -라네, -다오, -라오, -답니다, -랍니다, -답디다, -랍디다, -대, -래, -다지, -라지, -런다, -느걸, -르걸	
감탄법: 화자가 청자에게 문장에 담긴 상태정보에 대하여 놀라움이나 감탄 등의 주관적 정서를 담아 전달하려는 문장종결법	-구나, -구먼, -구려, -군, -로구나, -로구먼, -로구려, -로군, -어/아, -어/아라	-다는구나, -자는구나, -라는구나, -나는구나, -려는구나, -걸, -노라	
의문법: 화자가 청자에게 전혀 모르거나 불완전하게 알지만 청자는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정보를 요구하는 문장종결법	-냐, -니, -느가, -나, -오, -소, -비니까, -르까	-다느냐, -라느냐, -자느냐, -려느냐, -다니, -자니, -런, -그래	
약속법: 청자에게 문장에 담긴 명제 내용이 자신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행동에 대한 것임을 전달하려는 종결법	-마, -ㅁ세, -어/아	-리다, -오리다, -르게	
허락법: 화자가 청자에게 청자가 실행한 문장에 담긴 행동에 대하여 주관적 정서 없이 전달하는 문장종결법	-려무나, -려마, -렴, -구려, -어/아		
경계법: 화자가 청자에게 일어날 행동에 대하여 걱정이나 안타까움 등의 주관적 정서를 담아 전달	-르라, -리, -어/아	-리다	
명령법: 화자가 청자에게 실행할 문장에 담긴 행동을 요구	-어라/아라, -거라, -너라, -여라, -라, -게, -오, -소, -비시오, -소서, -어/아, 지, -도록	-래라, -라게, -라오, -라소서, -엇/앗	
공동법: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은 문장에 담긴 행동을 실행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하고 동시에 청자도 그러한 행동을 실행할 것을 요구	-자, -자꾸나, -세, -비시다, -어/아, -자	-라자, -라자꾸나, -라세, -랍시다	

<부록 - 2> 청자대우법의 종류

격식체 (Formal style)	존대	+Respect	비존대	+Respect
	아주높임 (합쇼체)	예사높임 (하오체)	예사낮춤 (하계체)	아주낮춤 (해라체)
(으)브니다 (으)브니까 (으)십시오 (으)십시오	(으)오 (으)오 (으)오 (으)브시다	네 는가 게 세	ㄴ/는다 니 어라/아라 자	
비격식체 (Informal style)	존대		비존대	
	두루높임(해요체)		두루낮춤(해체,반말)	
	어요		어	
	어요		어	

<부록 - 3> 놀이명 및 놀이 진행 방법

놀이명	진행방법	인원수
소꿉놀이	다양한 발화의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짝을 이룬 두 명의 아동으로 하여금 임상가와 함께 소꿉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연구자 1명, 아동 2명
자동차놀이	짝을 이룬 두 명의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한 인형 4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연구자 1명, 아동 2명
찰흙놀이	짝을 이룬 두 명의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한 찰흙을 이용하여 만들기를 하면서 자발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 1명, 아동 2명

ABSTRACT

Development of Final Endings of Three to
Four-Year-Old Children

Sun Ran Kim

(Shinwha Speech & Language Clinic)

Jung Mee Kim

(Dept.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Nazaren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se of final endings of three to four-year-old children. The use of final endings represents sentence completion and listener honorification. Thirty two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language samples were collected during their play. The sentence completion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s showed an order of explanation, interrogation, engagement, command, exclamation, caution, collaboration and permission. Also, the results showed that four-year-old children used a larger variety of final endings than did the three-year-old children. In listener honorification, the subjects showed the order of 'hai', 'hai-yo', 'hai-ra', 'ha-gei', 'ha-o' and 'hap-sho'. Also, four-year-old children performed better than the three-year-old children in the formal styl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chil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final endings, sentence completion, listener honorification.

▶ 게재 신청일: 2004년 9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04년 11월 15일

▶ 김순란(제 1 저자): 신화 말·언어치료실, e-mail: ksr5770276@hanmail.net

▶ 김정미(교신저자):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e-mail: jmkim@kornu.ac.kr